

 해양수산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	보 도 자 료		 광복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
담당 부서 해운정책과	배포 일시	2015.6.25.(목) 총 2매(본문1, 참고1)	
	담당 자	• 과장 이상문, 사무관 엄익환, 주무관 황현태 • ☎ (044)200-5716, 5717	
보 도 일 시		2015년 6월 26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6. 25(금) 06:00 이후 보도 가능	

해운 위기 극복을 위한 해운·금융 전문가 한자리에

- 해수부, 26일 서울에서 제7차 해운금융포럼 개최 -

해양수산부(장관 유기준)는 6월 26일(금)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해운·금융업계 및 연구기관, 해양수산부 등 산·연·정(産·研·政) 관계자들이 모여 '제7차 해운금융포럼'을 개최한다고 밝혔다.

이번 포럼에서는 운임선도거래(FFA)*를 통한 해운리스크 관리 방안과 함께 2015년 하반기 해운 시장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, 해운·금융 분야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게 된다.

* 운임선도거래(FFA:Freight Forward Agreement) : 해상운임 변동에 따른 위험을 헷징하기 위해 운임지수를 기반으로 거래하는 파생상품

해운금융포럼은 현 정부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'교통체계·해운 선진화'의 일환으로서 해운과 금융의 상호 이해도 증진을 위해 지난 2013년 12월에 발족한 협의체이다.

전기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"해운산업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해서는 해운과 금융 업계 간 소통과 융합이 중요하다."라며, "해운 금융포럼을 바탕으로 해운에 대한 금융업계의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"이라고 밝혔다.

□ **발족 배경**

- 해운금융 분야는 해운 및 금융산업이 망라된 융합분야로서 상호 정보공유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긴요
- 해운·금융업계, 정부, 연구기관의 해운분야 담당자간 정기 모임을 통해 시황전망 및 금융전략을 공유하고 협력 제고
 - * 시황전망 및 장기전략 공유, 수요맞춤형 금융상품 개발 등 협의기능 수행

□ **포럼 개요**

- (명칭) 「해운금융포럼」
- (구성) 국적선사,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, 정부, KMI 및 학계 인사 중 해운금융 전문가 및 주요 담당자
 - * 인사이동시 후임자 자동 승계(전임자도 희망시 지속 참여)
- (주요 활동) 해운 및 금융 이슈 점검, 선박금융 발전방안 모색 등

□ **운영 방안**

- (시기) 매 분기별로 정기회를 개최
- (방식) 전문가 초청 강연 또는 구성원 발제 후 자유토론 형식*
 - * 주제에 따라 합동 워크샵, 선상간담회, 크루즈체험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
- (간사) 해수부 해운금융 담당, 선주협회 임원, KMI 시황분석센터장